

2011년 2월

석사학위논문

Franz Schubert의
Piano와 Arpeggione Sonata
A단조(D 821)의 형식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박 지 유

Franz Schubert의
Piano와 Arpeggione Sonata
A단조(D 821)의 형식 분석

2011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박 지 유

Franz Schubert의
Piano와 Arpeggione Sonata
A단조(D 821)의 형식 분석

지도교수 박 계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박 지 유

박지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이 한 나</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박 계</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 지 현</u> (인)

2010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II. 낭만주의와 슈베르트음악	3
1. 낭만주의	3
2. 슈베르트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4
III. Arpeggione Sonata의 배경	7
1.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소나타 작곡기법 비교	7
2. Arpeggione Sonata의 작곡 배경	9
IV. Arpeggione Sonata 분석 연구	11
1. 1악장(Allegro moderato)	11
2. 2악장(Adagio)	26
3. 3악장(Allegretto)	32
V. 결 론	43
참고문헌	44

표 목 차

<표 1>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작곡기법 비교	7
<표 2> 제 1악장의 형식 구조	11
<표 3> 제 2악장의 형식 구조	26
<표 4> 제 3악장의 형식 구조	32

악보 목차

[악보 1] 마디 1-4	12
[악보 2] 마디 8-13	12
[악보 3] 마디 20-30	13
[악보 4] 마디 31-35	14
[악보 5] 마디 36-39	14
[악보 6] 마디 40-64	16
[악보 7] 마디 60-72	17
[악보 8] 마디 74-79	18
[악보 9] 마디 86-123	20
[악보 10] 마디 124-147	22
[악보 11] 마디 147-156	23
[악보 12] 마디 186-191	24
[악보 13] 마디 196-203	25
[악보 14] 마디 1-13	27
[악보 15] 마디 7-19	28
[악보 16] 마디 20-33	29
[악보 17] 마디 34-45	30
[악보 18] 마디 46-71	31
[악보 19] 마디 1-14	33
[악보 20] 마디 15-28	34
[악보 21] 마디 29-68	35
[악보 22] 마디 61-75	36
[악보 23] 마디 77-100	37
[악보 24] 마디 93-116	38
[악보 25] 마디 209-236	40
[악보 26] 마디 237-243	41
[악보 27] 마디 296-309	42
[악보 28] 마디 441-450	42

ABSTRACT

The Musical Form in the Sonata in A minor for Arpeggione by Franz Schubert

Park Ji-yu

Advisor : Prof. Pakh Kay

Dept. of Music,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F. Schubert composed lots of artistic songs with poems, melodies and accompaniments incorporated. So he is a representative composer of the early German Romanticism and is called the 'King of Songs' and head of romantic music. This study analysed his musical work <Arpeggione Sonata A minor (D.821)> based on data on his life, composing trends of Arpeggione Sonata and musical characteristics of romanticism. Arpeggione in the title of the song is an musical instrument, and it is the only song designed for the instrument. The musical work characterized by musical elements of classicism and romanticism has Slav or Magyar style of powerful and liberal character and consists of three movements with lyrical melodies and harmonies based on the classic sonata form. It is categorized into romanticism in that it uses liberal use of modulation to enhance its colorful character.

Movement 1 has sonata form consisting of introduction, development, recapitulation and consequence. Movement 2 consists of A - B - A' and C - D. Movement 3 has Rondo form. Schubert represented lyrical melodies in each

movement in regular sequence, which show his own melodic sense sticking to classic sonata form. He used diatonic scale melody, chromatic scale melody, melody by conjunction, melody by disjunction, modulations to avoid monotonous repetition, and various harmonies such as secondary dominant chords, secondary diminished 7th chord, German 6 th chord, French 6th chord, Neapolitan 6th chord to add colorful senses.

I. 서 론

‘낭만주의’(영어 Romanticism, 독일어 Romantik)라는 용어는 181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서 베토벤의 음악을 논하는 글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세기의 낭만주의는 18세기말의 고전주의에 깊게 뿌리박고 있으므로 이것은 고전주의와의 단절이 아니고 그것의 연장, 변화와 확장이었다.¹⁾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는 고전주의 음악의 시대에서 낭만주의 음악의 시대로 넘어오는 초기에 활동하였고, 하이든(J. Haydn, 1732-1809), 모차르트(W. A. Mozart, 1756-1791), 베토벤(L. v. Beethoven, 1770-1827)에 의하여 최고 절정에 달하는 고전음악의 전통을 따르면서 풍부한 서정성을 지닌 낭만주의 음악시대를 시작한 작곡가이다. 비엔나 출신인 슈베르트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 31세의 짧은 생애를 보냈지만, 600여곡이 넘는 교향곡, 피아노곡, 실내악곡, 예술가곡과 500여곡의 기악곡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는 특히 기악곡에 있어 고전주의 작곡가들의 형식이나 서법까지 응용하였기 때문에 그를 고전주의자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²⁾ 그러나 형식이나 서법을 뛰어넘는 슈베르트의 음악적 기질과 감각에서 낭만주의적 요소가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슈베르트는 시의 내용과 이미지, 느낌, 감정들을 음악으로 재해석하여 리트(Lied)³⁾라는 새로운 예술장르를 창조해냈다. 전통적인 형식이나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음악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선율적미를 자신의 감성과 조화시켜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그의 생전에 출판된 작품들로는 그의 가곡과 피아노 연탄곡⁴⁾ 등이 있으며, 그의 사후에는 기악곡들이 출판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1951년에 Otto Erich Deutsch가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출판한 이후에 슈베르트의 작품은 “ D ” 번호로 알려지었다.⁵⁾ 그가 작곡한 기악곡 중 지금은 중·저음 악기군인 비올라나 첼로로 연주되는 Arpeggione Sonata A minor는 슈베르트의 음악적 감성과 특징이 잘 표현되고 있

1) 김문자 외 4인 공저,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서울: 심설당, 2003), p.517.

2) D. G. Mason, 「The Romantic Composer, 낭만파 음악」, (서울: 국민음악 연구회, 1976), p.126.

3) 독일의 예술가곡을 칭함.

4) 한 대의 피아노로 두 사람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2중주를 의미함.

5) Schubert : Thematic Catalogue of All his works in chronological order, (New York, W. W. Norton, 1951)

다. 아르페지오네는 현재는 사라지고 없는 악기로 이 작품은 아르페지오네를 대신해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등이 사용되어 왔다. 이 악기의 음역 대에 대체할 수 있는 악기로는 중간음역을 가지고 있는 첼로와 비올라가 아르페지오네 악기의 음역에 차이가 있어 작품을 완성하는데 연주의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슈베르트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Arpeggione Sonata를 작곡하게 된 배경을 연구하고, 그의 <Arpeggione Sonata A minor> 작품의 선율적 특징과 화성, 조성, 형식 등의 내용을 고찰한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된 베토벤 <Cello Sonata 제 5번 Op. 102, No.2>과 슈베르트 <Arpeggione Sonata A minor D.821>의 형식, 선율, 리듬, 화성 등 작곡기법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악보는 원전악보인 G. Henle Verlag의 Schubert Sonata fur Klavier und Arpeggione a-moll D 821 Ausgabe fur Violoncello이다. 본 연구자는 앞의 원전 악보와 비교하여 INTERNATIONAL MUSIC COMPANY의 Schubert Sonata in A minor, D. 821 "Arpeggione" For Cello and Piano의 악보를 보며 연주하고 형식을 분석 연구하였다.

II. 낭만주의 음악과 슈베르트의 음악

1. 낭만주의

낭만주의는 1810년을 전후로 베토벤의 작품을 지칭하고 여러 음악에 관한 글에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 18세기 고전주의 음악에 기초를 두고 연장, 확장과 변형을 가져 온 것으로 알 수 있다.⁶⁾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은 어떠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스러운 표현과 무한한 것이 특징이다. 주관성, 감정표현, 자연과 관련된 소재와 자연스러운 것 등이 있고, 독창성에 가치를 두고 과거의 한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7) 작곡가는 음색, 화성과 리듬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 하려고 시도하였고 음악 기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혁을 갖고 고전시대의 이상 형식이던 소나타를 변형 혹은 포기하고 자유롭고 유동적인 형식을 사용하게 됐다. 즉 선율은 고전주의 음악처럼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인 것이 많아지면서 ‘당김음’이나 잇단음표 등을 자주 사용하여 다채로운 변화, 표현의 폭을 넓혀 그 음역대도 확대하였다. 감동적이고 서정적인 선율을 훨씬 선호하며 선율의 악구는 더 길어지고 불규칙하게 되어 많은 낭만적 선율은 노래와 같은 성격을 띠고 풍부한 감정을 나타내는 선율을 뒷받침하기 위해 화성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효과를 위한 과격적이고 독특한 화성 구조를 쓰며 협화음 해결 없이 불협화음으로 쓰였다. 또한 한 악장 안의 박자가 변화되는 박자와 리듬형태에서 폭넓은 다양한 리듬의 형태를 보여 주고 화성은 장, 단조 체계와 전조와 반음계 주의가 널리 확산되어 사용되었다. 오케스트라의 편성 또한 다양하게 확대되어 새로운 음색을 모색하게 되어 대대적인 편성으로 압도적인 음향을 요구하게 되었다. 소품을 나타내는 대표적 유형에는 마주르카, 미뉴에트, 왈츠, 녹턴, 발라드 등 서정적인 피아노 소품과 예술가곡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음악은 짧으면서도 특별한 강렬한 감정을 보여주기엔 적합하였고 이렇게 친밀한 곡들을 즐겨 작곡하였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이러한 소품 등이 개별 곡으로 나오면서 그 자체만으로 부각되었다.⁸⁾

6) 강만희, 「간추린 19세기 낭만음악사」, (대전: 예광, 2005) p.10

7) 임혜정, 「피아노문헌개요」, (서울: 수문당, 1981), p.97

2. 슈베르트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슈베르트(F. Schubert)는 시, 가락, 반주가 일체가 된 예술성이 풍부한 가곡을 많이 작곡하고 낭만파 음악의 최고봉으로 가곡의 왕이라 불리 우며 초기 독일 낭만파의 대표적 작곡가이다.

1797년 1월 31일 오스트리아 빈(Wien)의 교외인 리히텐탈 (Lichtental) 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이었고, 엄격하고 경건한 교육을 받았다. 그의 음악적 천분은 일찍부터 두드러져 8세 때 교회의 합창지도자들로부터 가창 · 바이올린 · 피아노 · 오르간 등의 기초적인 지도를 받았고 11세 때 아름다운 소년 소프라노 음성을 인정받아 빈 궁정에 배당의 합창아동으로 채용되어 슈타트 콘 빅트 (Statt Kon Vikt) 라 불리는 국립 기숙신학교에 들어갔다. 여기서 궁정 오르간 주자 루치카, 궁정악장 살리에리(Antonio Salieri, 1750-1825)⁹⁾에게 작곡법을 배워 작곡을 시작 하였다.

작곡가로서 슈베르트는 13세부터 기악곡을 작곡했고 15세 때는 최초의 서곡을, 16세에는 제 1교향곡을 작곡했다. 이 시대의 작품은 주로 교회나 학교 친구들과 사이에 연주할 실용음악으로 쓰였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들의 3분의 2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작곡되었다.¹⁰⁾

1813년 그는 변성기로 인하여 합창단과 학교를 그만두고 1년 과정의 교원 양성 학교에 다닌 후 17세 때부터 아버지가 경영하는 학교에서 2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곡을 써 이때 작곡 하게 된 곡들은 그를 빈 사회에서 유명하게 만든 <Missa F장조> 리히텐탈 초연을 비롯한 <제 1교향곡 D 장조>를 완성 했고, 오페라 <악마의 별장>이 1814년 5월 14일에 완성되었다가 살리에리의 조언으로 개작하여 10월에 탄생했다.

1815년은 슈베르트의 다작의 해로서 <들장미>¹¹⁾, <마왕>¹²⁾, 등을 포함하여 1년

8) 김문자 외 4인 공저,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서울: 심철당, 2003), p.523.

9) 이탈리아 작곡가이며 음악교육가, 빈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으며, 당대의 뛰어난 음악가들의 존경을 받은 작곡가이다.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의 스승이며 30여 편의 Opera, 교회 음악, 관현악곡 등을 작곡하였다.

10) 오현명, 「세계명곡 해설 전집」 작곡가편, (서울: 동오출판사, 1982), pp.192-197.

11) 가곡 들장미 D.257 슈베르트가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명곡. G장조, 4/2, 3절로 된 유절 형식(‘ 어린이를 보았네 ’ 어여쁜 들장미. 이른아침, 곱게핀 들장미를 보려고 빨리 달려 왔

동안에 144곡이나 되는 가곡을 작곡하였는데, 피테의 시에 의한 30여곡이 여기에 포함되어있다. 특히 가을에 작곡한 <마왕>은 그에게 큰 명성을 가져 다 주었다. 그는 자신의 가곡의 선율적 영감을 언제나 시에서 얻곤 했다. 피테, 쉴러, 하이네, 우라트, 뤼케르트 그리고 친구인 쇼버와 마일호퍼, 월터 스코트와 셰익스피어, 단테 페트라르카에 이르기까지 그의 가곡 중 60여곡은 피테, 47곡은 마일호퍼의 시에 붙여진 것이다.

슈베르트는 인생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프란츠 폰 쇼버(Franz Von Schober, 1796-1882)와의 만남이다. 쇼버를 통해 여러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의 도움으로 교사직을 그만 두고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쇼버, 바리톤 포글, 시인 요한 자이들, 슈파운 등의 여러 예술가 친구들로 이루어진 모임 '슈베르티아데' <슈베르트의 밤>가 결성 되었는데. 슈베르트는 이 모임을 위해 작곡을 하고 또한 이를 통해 성숙할 수 있었고 많은 걸작을 남겼으며 자신의 작품을 검증 받았다. 슈베르티아데가 처음 개최되었던 몇 달후 슈베르트는 쇼버의 소개로 성악가 포글라와 사귀게 되는데 포글라는 그녀가 자주 출입하는 사교 집회에서 슈베르트의 곡을 직접 불러 그의 가곡을 알리기도 했으며, 이시기는 이러한 가운데 가곡의 작곡기법이 많이 세련되어져 1817년에는 <죽음과 소녀>¹³⁾, <음악에>¹⁴⁾, <가니메트> 4곡의 피아노 곡 등이 작곡 되었다. 슈베르트의 짧은 생애에서 친구들의 존재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 하게 되는데, 흔히 예술적 천재에게 부수되는 결정적인 로맨스나 다채로운 사랑의 에피소드 같은 것을 그의 삶에선 찾아보기 힘

네, 장미, 장미, 장미꽃, ' 붉게핀 들장미 ') 이성삼, 「클래식 명곡 대사전」, (서울: 세광 음악 출판사. 1997), p.352

12) 가곡 마왕 1815년 슈베르트가 18세때 피테의 시에 작곡한 최고의 걸작이다. 말이 질주하는 정경을 그린 음산한 셋잇단음표의 진주로 시작한다. 설명하는 사람. 아버지. 아들. 마왕 등. 4사람의 소리로 분담하여 극적으로 노래하는데, 아버지의 말은 나지막하게 아이의 소리는 높게, 마왕의 이야기는 속삭이듯 약하게 쓰여 졌으며 시와 선율과 반주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예술가곡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용일, 「명곡해설대사전」,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3), p.208

13) 죽음과 소녀 - 마왕의 형식을 축소 한 것처럼 이곡은 죽음의 공포에서 달아나려고 몸부림치는 소녀에게 '죽음'이 공포가 아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와 표현하고 있다.

14) 음악에 - 1817년 3월에 작곡되었으며 친구이자 그의 경제적인 후원자인 쇼버(Franz von Schober 1796-1882)의 시에 의한 것이다. 단순한 2절의 유절(有節) 형식의 곡이지만 음악예술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뜻이 깃들여 있는 시의 내용과 잘 어울리며, 간소함 속에서도 리트다운 순박한 감정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 뛰어난 가곡이다.

들다. 슈베르트는 고독을 싫어하고 표면적인 기쁨과 활기찬 분위기를 필요로 했다. 그는 불임성 있고 겸손하며 충심으로 친구들에게 헌신적 이었다. 슈베르트의 친구들은 대부분 재치 넘치는 인재들로 빈 문화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로 모두 슈베르트에 대한 사랑과 우정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그들은 슈베르트의 음악을 세상에 알리고 그가 계속 작곡할 수 있도록 생활을 뒷받침해 주었다.

1820년 12월에는 존 라이트너 가에서 마왕이 초연에 대 성공을 거두고 1822년부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얻어 심하게 고생하기 시작하여 이때 대작 <방랑자 환상곡>¹⁵⁾ 을 작곡 했으며 <미완성 교향곡 8번>을 작곡했다. ‘가곡의 왕’이라 불리는 슈베르트는 1827년에 두 개의 Piano Trio, 8개의 Impromptus,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Fantasia, <Die Winterreise(겨울 나그네)>¹⁶⁾등을 작곡했다. 1828년 에는 <교향곡 9번 C장조>,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5중주 C장조>와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유작으로 남기며 1828년 11월 29일 32세의 짧은 생애를 마치며 그의 유해는 유언에 따라 벨링크 묘지의 베토벤의 옆자리에 나란히 묻혔다.

15) 슈베르트는 고전주의 시대의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악곡의 모든 장르에 손을 대고 있다. 이점은 Romantisim 시대의 작곡가가 일정한 악곡에 한해 작곡한 것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형식으로 곡을 썼다. 이러한 자유로운 형식 가운데 그의 피아노곡 「방랑자 환상곡」의 어떤 부분은 슈만적 이며, 또 연주 기교면에서는 리스트에 가깝다. 「악흥의 한때」, 「즉흥곡」은 멘델스존 이나, 슈만의 소곡연작의 직접적인 선구 이며 19세기 후반에 무수히 작곡된 서정 소곡, 또는 살롱 피스의 출발점이 되었다.

16) 전부 24곡으로 이뤄진 가곡으로 뮐러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이 가곡집은 그가 빈곤가 신병으로 인하여 대단히 침울한 상태에서 씌여진 것으로 시의 내용과 공감하고 있다.

Ⅲ. Arpeggione Sonata의 배경

1.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소나타 작곡기법 비교

고전과 음악양식을 최고 정상까지 높이는 동시에 19세기 낭만주의의 길을 열어 후세에 많은 영향을 준 대표적인 고전과 작곡가 베토벤과 낭만파 음악의 최고로 ‘가곡의 왕’이라 불리 우며 초기 독일 낭만파의 대표적 작곡가 슈베르트의 작곡 기법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작곡기법 비교

	Beethoven	Schubert
형식	고전형식 제시부-발전부-재현부의 sonata 형식	제시부-발전부-재현부-종결구의 sonata 형식
선율	대위법적인 주제선율 진행 모호한 조성과 반음계적 선율을 통한 잦은 전조. 노래하는 듯한 서정적인 선율	온음계적 선율, 반음계적 선율 선율의 진행방향 동일 강박상에 비화성음 배치 도약적 선율에 전과음 배치
리듬	동기리듬 역행, 축소하여 변형·발전 새로운 주제리듬으로 변형 동기의 통일성	반복형 동형진행형으로 진행, 발전 같은 리듬 동기 사용
화성	캐논 주제선율의 전위·역행 대위법적인 기법	나폴리 6화음, 독일 6화음, 감7화음 관계조의 전조 외에 장·단조의 교차적 조바꿈 반음계적 진행

위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베토벤은 고전시대와 낭만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음악의 객관적인 형식을 중요시한 고전과 작곡가들은 기악음악을 선호하게 되었고 기악음악을 통하여 정격화 된 형식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 정격화된 형식이 ‘소나타 형식’이다. 고전과 음악의 가장 주된 특징은 소나타 형식에 있다. 소나타 형식은 고전과 기악음악의 기초이자 구성 원리이다.¹⁷⁾ 대위법적인 주제 선율을 진행하고 모호한 조성과 반음계적 선율을 통한 잦은 전조와 노래하는 듯한 서정적인 선율을 사용함으로 낭만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Cello Sonata 제 5번 Op.102, No.2>, <Cello Sonata 제 3번 Op.69> 등이 있다.

베토벤과 슈베르트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살았다고도 본다. 그러하듯 작곡기법에 있어서도 크게 서로 대립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주로 낭만적 서정적인 선율을 사용함으로 베토벤의 영향이 슈베르트에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베토벤은 화성, 조성, 주제별 소재 및 형식에 있어 혁신적인 기법을 보여준다. 그의 관현악 기법은 개별 악기의 개량과 연주기법의 증진을 추구하는 그의 안목을 말해주고 있다.¹⁸⁾ 19세기 초 슈베르트 역시 주요 소나타 작곡가로 꼽을 수 있다. 그의 소나타 곡에서는 분산화음을 이용한 반주형과 대조 확대되는 등 다양한 리듬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가곡을 통해서도 그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17) 홍세원, 「고전과 음악」,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p.280.

18) 김문자 외 4인 공저,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서울 : 심설당, 2003), p.441.

2. Arpeggione Sonata의 작곡 배경

Arpeggione Sonata in a minor D.821은 슈베르트가 1824년 그의 나이 27세 되는 해에 작곡되었다. 그는 가난에 질병까지 겹치면서 최후 10년간 그의 높은 예술적 목적에 대한 세상의 냉담함을 경험했고 그의 의지를 상실케 했다. 그의 가곡은 대단히 환영을 받았으나, 실내악곡이나 관현악곡은 그의 주위의 가까운 친구 이외에는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내면적인 자부심만을 의지하였다. 예술에 대하여 온 몸을 받친다는 태도로서 해마다 뛰어난 실내악곡을 계속 창작했다.¹⁹⁾ 1824년 11월 아르페지오네의 교사이자 연주가인 슈스터(Vincenz Schuster)에 의해 아르페지오네란 악기를 사용하여 처음 연주되었다.²⁰⁾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아르페지오네(Arpeggione)’란 악기를 위해 작곡된 것으로 이 악기를 위하여 작곡된 곡은 Arpeggione Sonata가 유일한 곡이며 그후 Arpeggione를 위한 작품은 작곡되지 않았고 연주가들의 호응이 없었으며 좋지 않다는 평들로 인해 이 악기는 사라졌다. 현재 악기의 견본은 쾰스브루그(Salzburg)의 고대 악기 보관소에서 보관중이다.²¹⁾

슈베르트는 Arpeggione Sonata를 작곡한 해인 1824년 에스테르 하치 백작의 방문(1818) 이후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헝가리의 제레스(Zelisz)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에서 백작의 두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으며 카롤리네즈와의 로맨스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잠시나마 건강을 되찾으며 그의 생애 중 비교적 행복한 때를 보내게 된다.²²⁾

제레스는 헝가리의 향토가 짙은 도시였으며 슈베르트는 슬라브나 마자르의 요소를 풍부하게 채택하여 몇 개의 실내악곡을 작곡하였다.²³⁾ 그 헝가리풍 디베르티멘

19) D. G. Mason, 「낭만파의 음악」, (서울: 국민음악 연구회, 1976)

20) *The Harvard Dictionary of Music,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p.55

21)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al instruments, 3rd ed.* (Stanley Sadie: New York, N.Y. 1984), p.74

22) Alfred Einstein, 「Music in the Romantic Era」, (W. W. Norton and Company. Inc. New York, 1947), p.87

23) 세계명곡해설대전집 제12권, 세계명곡해설대전집 편찬위원회, (서울: 중앙문화사, 1984), p.407.

토(Divertimento I'hongroise)²⁴⁾의 하나가 Arpeggione Sonata in A minor 이다. 이 때 작곡된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슬라브 풍이나 마자르 풍의 힘차고 분방한 성격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전주의 소나타 형식을 바탕으로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과 화성을 보여주는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자재로 전조를 사용하여 자신의 개성을 살리며 곡에 색채감을 더하여 낭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빈센트 슈스터(Vincenz Schuster)의 요청에 의해 슈베르트가 작곡했다고 알려지면서 기타에 첼로를 더한 듯 한 이 아르페지오네의 음에서 헝가리풍의 음색을 발견하고 그것에 매료되어 작곡을 하였다고도 한다.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악보는 1871년에 정식으로 출판되어 오늘날 첼로나 비올라의 레퍼토리로 연주되고 있다. 카사도²⁵⁾의 편곡에 의한 V. Cello와 관현악과의 협주곡풍의 형태나 도브링거 편곡의 violin과 piano의 2중주의 형태로 연주되기도 한다. 이는 아르페지오네란 악기가 이미 사라지고 이 악곡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및 더블 베이스 등으로 연주되는데 원래의 아르페지오네가 첼로 크기의 활로 연주하는 것이므로 중저음 악기인 비올라나 첼로로 연주하는 것이 슈베르트의 작곡 의도에 맞다고 볼 수 있다.

24) Divertimento : 18세기 중엽에 나타난 일종의 기악 모음곡인데, 형식은 모음곡보다 자유스러우며, 4~10개의 비교적 짧은 악장으로 이루어진다.

25) 에스파냐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 카잘스의 스타일을 계승한 대표적인 연주자로 국제적으로 활동하였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의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편곡으로 유명하다.

IV. Arpeggione Sonata 분석 연구

1. 제 1악장 (Allegro moderato)

이 곡은 제 1악장은 Allegro moderato, 4/4 박자의 소나타 형식으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종결구로 나누어진다. 다음 <표 2>와 같이 총 205마디로 구성 되어있다.

<표 2> 제 1악장의 형식 구조

구조	구성	조성	마디
제시부	제 1주제부	A minor	1 - 30
	경과부	C Major	30 - 39
	제 2주제부	C Major	40 - 67
	소 종결구	C Major	67 - 73
발전부	제 1주제의 발전	F Major (74 -78마디) D minor (79 - 86마디)	74 - 86
	제 2주제의 발전	D minor (87 - 102마디) F minor (103 -108마디) A minor (109 -123마디)	87 - 123
재현부	제 1주제부	A minor (124 -139) E minor (140 -148)	124 - 148
	경과부	A minor (149 - 155마디) A Major (155 - 156마디)	149 - 156
	제 2주제부	A Major (157 - 184마디)	157 - 184
	소 종결구	A Major	184 - 188
종결구		A minor	188 - 205

A. 제시부 (1 - 73마디)

이 곡의 제 1주제부는 1 - 30마디 셋째 박까지로, 첼로에 앞서 피아노가 먼저 1 - 4마디의 주제를 제시하는 형태이다([악보 1] 참조).

[악보 1] 마디 1-4

위의 [악보 1]에서 보여 지듯이 처음 4마디의 주제는 피아노가 제시하고, 뒤이어 10 - 13마디까지 첼로가 반복, 전개한다. 첼로 선율은 순차적으로 상행하며 완전 5도, 단 6도로 하행한다. 10, 11마디 첫째, 셋째 박의 음(a', b', c')은 피아노 오른손 선율 a'-g#'-a'음과 수직적 반 진행을 하며 화성은 a 단조로 진행하고, 으뜸화음-딸림화음-으뜸화음의 진행인 '정격중지'(Authentic Cadence)이다. 리듬은 ♩ - ♩ ♩ - ♩로 분할되어 진행된다. 12, 13마디의 첫째, 셋째 박에 순차 진행선율(E-F-E)은 10, 11마디의 첫째, 셋째 박의 음(A-B-A)의 완전5도 위 진행, 피아노의 왼손 동음 반주가 지속음 A와 움직임이 대조 되고, 으뜸화음은 버금딸림화음을 거쳐 다시 으뜸화음으로 해결되는 '변격중지'(Plagal Cadence)가 등장한다. 또한 1악장 전체에 걸쳐 중지형으로 발전된다([악보 2] 참조).

[악보 2] 마디 8-13

첼로의 22 - 23마디 셋째 박까지는 두 박자 단위로 단 6도 아래, 장 3도 아래로 동형진행 하며 위의 2박 단위의 선율은 주제의 중심선율 (E-F-E) 리듬이 변화 형태로 반복된다. ♩ ♩ 리듬이 분할되어 25, 26마디에서 ♩♩♩ 로 발전되고 22마디 부터 진행되는 코드(Chord) 반주는 1-21마디의 분산화음을 이용한 반주형과 대조 된다. 26마디의 박자의 첫 음 선율진행 (A-B-C)는 첼로의 1주제가 시작되는 10마 디 선율진행과 동일하고 26 - 30마디는 도약 진행 한다([악보 3] 참조).

i V i V i V i V i V i iv i iv i

[악보 3] 마디 20-30

B. 경과부 (30 - 39마디)

31마디는 2박자의 지속음과 16분음표의 도약 음정이 대조되어 하행 진행하고 셋째 박이 전위, 확대 되어 피아노 왼손 반주 3,4 마디로 진행되어 첼로의 넷째 박 진행은 피아노 반주 왼손 1,2 마디로 전위, 첼로와 피아노 왼손 반주가 교차 하여 진행 되었다. 33마디의 첼로 셋째 박과 같은 마디 피아노 왼손 반주 셋째, 넷째 박으로 확대된 리듬이 장 2도 아래 동형진행을 한다([악보 4] 참조).

[악보 4] 마디 31-35

36, 37마디는 2박자 단위의 선율 진행방향이 동일, 각 마디의 첫째 박, 셋째 박은 39마디 첫 음까지 순차 하행하며, 36마디 피아노 오른손 반주 아래 성부의 둘째 박 첫째 음까지 선율 (D-B-C)은 37마디 첫째 박, 둘째 박으로 선율의 진행이 추가되어 38마디이고 장 2도 아래로 동형진행 하며 C장조로 전조 되었다([악보 5] 참조).

[악보 5] 마디 36-39

C. 제 2주제부 (40 - 67마디)

C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제 2주제부의 주제선율은 40, 41마디이다. 40마디 피아노 왼손 반주는 C 장조의 으뜸화음 구성음이 하행으로 도약하고 41마디 피아노 오른손 반주는 첼로의 주제선율을 옥타브 위에서 중복 진행 하여 단 2도 아래 동형 진행 되었다. ♩ 리듬과 ♩ 리듬이 대조 되고 40 -43마디는 으뜸화음- 버금팔림화음 - 윗으뜸화음 - 가온화음 의 4도권의 화성으로 도약진행 한다. 45마디의 첼로와 피아노 왼손 반주는 각각 3도 관계를 유지하며 상행 진행하고 49, 50마디는 순차 하행 진행한다([악보 6] 참조).

40 a tempo

pp C를 중심으로 상하 보조음 사용 40마디 선율의 옥타브 위 진행

a tempo

pp 1도 화음의 하행 도약

44

cresc. *p* 각 첫째음 3도 관계 유지 상행 진행 *cresc.* *p*

cresc. *p* *cresc.* *p*

48 순차 하행 진행

45마디 진행의 발전형

cresc. f p

cresc. f p

순차 상행 진행

52

pp

pp

56 반진행

f

f

상행 도약 진행

60

p cresc. f p

p cresc. f p

동음 진행 선율 대조

[악보 6] 마디 40-64

D. 소 종결구 (67 - 73마디)

작은 종결 부분은 제63마디 둘째 박부터 65마디 선율 진행이 옥타브 위에서 모방되어 나타난 67마디 둘째 박부터 69마디이다. 이어지는 71, 72마디는 으뜸화음과 딸림화음의 진행을 반복하여(I - V - I - V7 - I) F 장조로 조바꿈되면서 제시부를 종결한다([악보 7] 참조).

60 *p* *cresc.* *f* *p*

65 선율 진행이 옥타브 위에서 모방

69 *pizz.* 코드진행 종결 1. 2. *fz* *p* *fz* *p*

[악보 7] 마디 60-72

E. 발전부 (74 - 123마디)

74 - 86마디는 제 1주제의 발전부이다. 발전부가 시작하는 74 마디부터 피아노의 오른손 반주가 1주제의 주제선율이 진행되는 동안 첼로가 도약진행하여 피아노 선율을 진행을 반주한다. F 장조에서 d 단조로 조바꿈이 되면서 주제 선율의 색채가 변화되었다([악보 8] 참조).

[악보 8] 마디 74-79

제 2주제의 발전부는 87 - 123마디로 각 박자마다 8도, 7도, 6도, 5도로 축소시키며 음정관계가 하행 진행하고 첼로와 피아노 반주의 리듬 선율은 동일하나, 선율의 방향이 전위되었다. 첼로 선율은 온 음표의 긴 음가 진행을 하고 피아노 오른손 반주에서 진행되는 리듬을 확대 시켰다. 관계조로 전조되고, 같은 으뜸음조로 조바꿈한다. 상행 도약하는 첼로선율은 순차 하행되어 재현부로 진행한다([악보 9] 참조).

90

완전 5도 아래 대위 진행

cresc.

cresc.

94

fz *p* *pp* *cresc.*

f *pp*

100

87, 88마디가 단 3도 위에서 동형진행 됨 *pp*

mf *pp*

104

91마디 리듬형이 단 2도씩 순차하행 동형진행

mf *pp*

107 *cresc.* 1주제 주제선율 인용

B C A f E F E

111 *ff*

Vc와 Pf가 대위적으로 선율을 주고받으며 진행함.

115 *fz* *dim.* *fp* *ritard.*

V도 구성화음으로 선율하행, 도약 진행함

fz *pp* *p* *ritard.*

Con Ped. V화음이 개리위치로 진행함.

[악보 9] 마디 86-123

F. 제현부 (124 - 188마디)

제 1주제부는 124 - 148마디 이다. 제시부의 1주제부와 동일하며 분산 화음 진행이 추가 되었다([악보 10] 참조).

124 a tempo

129

분산화음 이용한 꾸밈음정

134

분할된 리듬으로 옥타브 위에서 진행함.

139

143

[악보 10] 마디 124-147

위의 [악보 10]에서 보여지듯이 132마디의 첼로의 멜로디는 분산화음을 이용하여 꾸밈음정을 보여주고 있다. 136마디부터 138마디까지의 첼로의 선율 리듬을 피아노가 138마디부터 분할된 리듬을 옥타브 위에서 진행하고 있다.

G. 경과부 (149 - 156마디)

제시부의 1주제부의 경과부가 변형되고 첼로선율의 음정 진행방향이 전위 되었다. 각 마디별 2박 단위의 음정 진행이 순차하행 하면서 피아노의 반주 선율에 음정이 추가되어 모방진행을 한다. 같은 으뜸음 조인 A 장조로 전조한다([악보 11] 참조).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measures 147-150) features a piano accompaniment with a bass line of eighth notes and a treble line of chords, marked *pp*. The second system (measures 151-154) includes a vocal line in the upper staff and piano accompaniment in the lower staves. The vocal line has a circled phrase with the annotation "33마디 음정 진행 방향 전위" and a *p* dynamic. The piano accompaniment has a *p* dynamic. The third system (measures 155-156) shows a vocal line with *ritard.* and *decresc.* markings, and piano accompaniment with *pp* and *decresc.* markings.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the annotation "음정 추가 모방 진행".

[악보 11] 마디 147-156

제 2주제부는 첼로의 선율이 확대 되었다. 제1주부의 제 2주제부의 리듬을 변형시켜 진행하고 있다. 소중결구는 184 - 188마디이다([악보 12] 참조).

186

191

[악보 12] 마디 186-191

H. 종결구 (188 - 205마디)

196마디의 피아노 오른손 반주 선율은 26마디 첼로 선율을 확대시키고 옥타브 음정으로 진행 한다([악보 13] 참조).

191

26마디 첼로 선율 확대 옥타브 음정 진행

198

I도 구성화음 분산화음으로 상행시킨 선율

i iv i V7 i

[악보 13] 마디 196-203

188마디부터 a 단조로 진행하고 196 -201마디는 으뜸화음 - 딸림화음의 진행을 반복하며 200마디의 으뜸화음은 분산화음으로 상행시킨 선율 201 - 204마디 첫박 까지 연장 진행한다. 202 - 204마디는 으뜸화음 - 버금딸림화음 - 으뜸화음 - 버금딸림화음 - 으뜸화음으로 변격중지에서 205마디는 버금딸림화음 7 - 으뜸화음으로 정격중지 된다.

2. 제 2악장 (Adagio)

제 2악장은 3/4 박자 Adagio로 1부 A, B, A'의 복합 3부 형식과 2부 C, D의 2부분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다음 <표 3>과 같이 총 71마디이다.

<표 3> 제 2악장의 형식 구조

구조	구성	조성	마디
1부	A	E Major	1 - 11
	B	E minor (12 - 19마디)	12 - 19
	A'	E Major (19 - 15마디) C# Major (27 - 31마디) E Major (31 - 33마디)	20 - 33
2부	C	E minor (34 - 38마디) E Major (39 - 41마디) C Major (42 - 29마디) E Major (47 - 49마디)	34 - 49
	D	C Major (50 - 65마디) E Major (66 - 71마디)	50 - 71

A. 1부 (1 - 33마디)

A는 1 - 11마디, B는 12 - 19마디, A'는 20 - 33 마디로 되어 있다. 피아노 반주의 시작으로 4마디에서부터 첼로의 주선율이 진행되고 2마디 단위로 상 하행하고 E 장조로 화성 진행이 된다. 6마디의 첼로 주선율은 피아노 왼손 반주에서 완전 4도 아래로 동형진행하고 7마디의 셋째 박에서 꾸밈음이 사용된다. 4, 5마디의 주선율이 8, 9마디에서 반복되었고, 피아노 왼손 반주가 순차하행 하는데 상행하는 첼로 주선율과 반진행 된다([악보 14] 참조).

The musical score for section A, measures 1-13, is presented in a three-staff format. The top staff is for the cello, the middle for the piano right hand, and the bottom for the piano left hand. The tempo is marked 'Adagio'. The piano part begins with a forte (*pp*) legato accompaniment. The cello line starts with a piano (*p*) dynamic. The score is divided into sections A and B. Section A covers measures 1-11, and section B covers measures 12-19. The score includes annotations such as '완전 4도 아래 동형 진행' and '반진행'.

[악보 14] 마디 1-13

B는 E 장조의 같은 으뜸음 조인 e 단조로 전조되어 동음진행하고 상행진행하는 선율이 보인다. 12마디부터 피아노가 순차하행하는 선율과 반진행을 한다([악보 15] 참조).

[악보 15] 마디 7-19

A가 확장, 수식, 반복된 부분이 바로 A'이다. A의 4 - 7마디의 주제선율이 20 - 23마디와 동일하고 E 장조로 진행되다가 3도 관계인 C# 장조로 전조 되고 다시 2부로 가기위해 E 장조로 진행한다([악보 16] 참조).

[악보 16] 마디 20-33

B. 2부 (34 - 71마디)

C는 34 - 49마디, D는 50 - 71마디로 되어있다. 34, 35마디는 순차 상 하행을 하면서 아치형으로 진행 된다. 피아노의 오른손 왼손 반주가 같은 옥타브로 화음 반주를 하고 첼로의 주선율은 순차진행을 하는 앞부분과 분산화음형으로 도약하고 순차 진행되는 뒷 부분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e 단조로 진행 하다가 같은 으뜸음 조인 E 장조로 전조되고 42마디부터 3도 관계인 C 장조로 전조되어 다시 47마디에서 E 장조로 진행된다([악보 17] 참조).

40 단 3도 위 모방 진행 *p* *cresc.* *fp*

[악보 17] 마디 34-45

C부분의 종지와 함께 시작되는 D부분은 50 - 57마디는 선율이 상 하행하면서 아치형의 구조로 진행되고 58 - 65마디는 50 - 57마디가 완전 4도 아래 동형진행 된다. C 장조로 진행하다 66마디부터 다시 3도관계인 E 장조로 전조된다. 피아노의 반주부는 A - Ab - G - Gb - F로 반음계적으로 하행진행 한다. 68 - 71마디는 첼로의 선율이 종지적 연장구로서 3악장을 연결시키는 듯 보인다([악보 18] 참조).

46 *p* 선율 상행

54 선율 하행 *pp* 반음계적 하행 진행

63

중지적 첼로 선율 진행

ritard.

ritard.

[악보 18] 마디.46-71

3. 제3악장

제 3악장은 2/4 박자 Allegretto로 1부 론도 형식(Rondo form)으로 진행된다. 다음 <표 4>와 같이 총 450마디이다.

표 4) 제 3악장의 형식구조

구조	구성	마디
A	A Major (1 - 12마디) F minor (13 - 17마디) C Major (18 - 21마디) E Major (22 - 25마디) A Major (26 - 41마디) C Major (42 - 45마디) E Major (46 - 49마디) A Major (50 - 73마디)	1 - 75
B	D minor (77 - 93마디) F Major (94 - 106마디) D minor (107 - 135마디) A minor (135 - 160마디)	76 - 160
A'	A Major (161 - 172마디) F# minor (173 - 177마디) C Major (178 - 181마디) E Major (182 - 185마디) A Major (186 - 211마디)	161 - 211
경과부	A Major (212 - 214마디) E Major (215 - 237마디) E minor (238 - 240마디)	212 - 240
C	E Major (241 - 295마디) A Major (296 - 319마디)	241 - 319
B'	A minor (320 - 325마디) E minor (326 - 331마디) A minor (331 - 337마디) C Major (338 - 349마디) A minor (350 - 395마디)	320 - 395
A'	A Major (396 - 412마디) C Major (413 - 416마디) E Major (417 - 420마디) A Major (421 - 450마디)	396 - 450

A. A (1 - 75마디)

주제 선율은 1, 2마디이고 1악장 10 - 13마디 첼로의 주제선율로 진행되며 3 - 6마디 강박에서 주제 선율이 보인다. 피아노의 왼손 선율은 A음으로 지속되고 각 마디의 첫 음 E는 수직적으로 완전5도를 진행한다([악보 19] 참조).

[악보 19] 마디 1-14

17마디는 단 7도 도약하행 하고 18마디에서 C 장조로 진행되며 장 6도 도약 하행한다. 피아노 왼손 옥타브 진행은 C# - D - D# - G# 로 상행하고 피아노 오른손 마디별 첫 음은 E - D - C - B 로 하행하며 반진행 한다. 22마디부터 3도 관계인 E 장조로 전조되고 25, 26마디는 17, 18마디의 하행했던 선율과 반대로 상행하며 27, 28마디는 25, 26마디가 장 2도 아래로 동형진행 되었고 버금딸림조인 A 장조로 진행된다([악보 20] 참조).

[악보 20] 마디 15-28

33 - 40마디는 (a' + b')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33 - 36마디는 a의 1 - 4마디가 반복되고 37 - 40마디는 b의 17 - 20마디가 단 2도 위로 동형 진행 된다. A 장조로 진행하다 42마디에서 C 장조로 전조되고 41 - 56마디는 b (17 - 32마디)와 동일한 진행을 보인다. 33 - 40마디와 57 - 64마디는 동일하다([악보 21] 참조).

29

p *at*

45

p

53

57 - 64마디는 33 - 40마디와 동일

p *p*

61

p *p*

[악보 21] 마디 29-68

a' (65 - 75마디)는 a의 7, 8마디 음형이 2박 단위로 A 장조로 진행된다. 69마디부터 V 진행이 지속되고 72마디에서 I가 지속되며 정격중지를 강조하였다([악보 22] 참조).

AM: V - -7 I - - -

[악보 22] 마디 61-75

B. B (76 - 116마디)

B부분은 76 - 98부분, 99 - 116부분, 117 - 128부분, 128 - 160의 제가지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처음 77마디는 한 박자 안에서 동음으로 옥타브 도약진행 2번을 하고 3도 도약진행을 하며 78마디까지 반복되고 80마디는 A의 주제 음형으로 진행된다. 85마디는 강박 비화성음이 사용되며 86마디는 옥타브 도약진행을 하고 77, 78마디와 동일한 첼로선율을 보이는 93, 94마디는 피아노의 선율이 순차 하행

진행을 한다([악보 23] 참조).

77
mf 음형 반복

85
강박 비화성음

93
순차 하행

[악보 23] 마디 77-100

99마디는 선율이 상행하고 100마디는 하행한다. 99 - 106마디는 2마디 단위로 V - 7 / I 의 진행을 하고 106마디 마지막 음 - 109마디 첫 음까지 각 프레이즈 단위로 단 7도 - 단 6도 - 완전 5도로 음정간격이 줄어든다. 107마디에서 나란한 조인 d 단조로 전조된다([악보 24] 참조).

93

순차 상행 순차 하행

순차 하행

p

101

단 7도 단 6도 완전 5도

p

109

음형 상행 a'로 연결

cresc.

fz

[악보 24] 마디 93-116

C. A + 경과부 (161 - 240마디)

이 부분은 1 -40 마디와 65 - 75 마디와 동일하게 재현한다. 212 - 218 마디는 경과부가 시작되는 선율로 도약하는 것이 특징이다. A 장조로 진행하다 215마디에서 버금 딸림조인 E 장조로 전조되고 219마디는 둘째 박 첫 음까지 순차 진행 단 7도 도약후에 둘째 박 두 번째 - 네 번째 음이 순차 하행한다. 224마디 첫째 박 3도 음정을 확대시켜 진행하고 226마디는 225마디가 완전 5도 아래로 동형진행 된다. 피아노 왼손 반주의 완전 5도 관계 하행 진행 역시 각각 장 2도 아래로 동형 진행 되었다([악보 25] 참조).

The image shows two systems of musical notation. The first system starts at measure 209 and ends at measure 218. The second system starts at measure 217 and ends at measure 226. The notation includes treble and bass staves with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dynamics (fz, p, pp), articulations (accents), and slurs. The key signature i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223

음정 간격 확대

완전 5도 관계 하행 진행

229

cresc. *pp* *cresc.*

cresc.

[악보 25] 마디 209-236

D. C (241 - 319마디)

241, 242마디는 선율이 1박자 단위로 도약 하행 상행 진행을 하고 243, 244마디 첫 박은 단 2도로 하행 진행 반복된다. 241 - 244마디는 245 - 248마디와 동일하고 250 - 253마디는 각 마디 둘째 박과 다음 마디 첫째 박이 5도 관계 화성으로 진행되며 253 - 255마디의 피아노 반주는 서로 반 진행 한다([악보 26] 참조).

237

도약 하행, 도약 상행 진행

f *p*

단 2도 하행 진행 반복

244

250

[악보 26] 마디 237-243

296마디부터 첼로는 상행 도약 하는 음정을 pizz로 연주하고 308마디부터 8분쉽 표로 진행되던 각 마디의 처음 반 박자에 음정이 추가되어 연주된다([악보 27] 참조).

296

304

반박자 음정 추가

[악보 27] 마디 296-309

E. B' + A' (320 - 450마디)

B'는 B의 전체가 완전 4도 아래로 진행 되었다. 396 - 443마디는 A와 동일하고 446 - 448마디는 선율 A음을 지속한다. 피아노는 443 - 447마디의 같은 음형을 반복하고 있다. 첼로는 449마디를 으뜸화음으로 코드 진행을 하고, 450마디는 아르페지오로 활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며 음정을 지속시켜 곡을 종결한다([악보 28] 참조).

441

화음 코드 진행 아르페지오 종결

같은 음형 반복

dim. ff p

[악보 28] 마디 441-450

V. 결 론

본 연구는 19세기 낭만주의 음악과 슈베르트 Arpeggione Sonata a minor 악곡을 분석 고찰한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슈베르트는 초기 낭만시대의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작곡가로서 '아르페지오네(Arpeggione)'란 악기를 위해 작곡된 것으로 이 악기를 위하여 작곡된 곡은 Arpeggione Sonata가 유일한 곡이다. 이 작품의 선율의 구조와 형식, 조성과 화성을 분석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작품의 형식은 제 1악장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종결구로 되어있는 '소나타 형식'이고 2악장은 A - B - A'의 '복합 3부분형식', C - D의 '2부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악장은 '론도 형식'이다.

둘째, 선율의 구조는 두 개의 주제가 서로 대조를 이루는 특징을 강조하고 주제 선율을 반복 사용하였다. 슈베르트의 선율적 감각이 잘 드러나는 서정적인 선율이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순차 진행을 하여 대비되는 온음계적 선율, 반음계적 선율, 순차적 선율, 도약적 선율이 잘 나타나 있다.

셋째, 화성적 특징은 일정한 선율과 리듬의 반복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전조를 사용하여 색채감을 주고 부속화음, 부감 7화음, 독일 6화음, 프랑스 6화음, 나폴리 6화음 등 다양한 화음을 사용하였으며 종지에서 사용한 나폴리 6화음의 진행은 베토벤이 사용한 작곡기법이기도 한다.

넷째, 형식과 조성에 있어서는 고전주의 소나타 양식에 기초를 두고 소나타 형식의 발전부에서 매우 먼 관계조의 조성 F - Db - a 로 전조되는 낭만주의적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고전주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선율의 서정성, 자유로운 전조, 조바꿈 변화화음 등의 풍부한 화성을 통하여 오늘날 사라진 '아르페지오네 (Arpeggione)'를 위한 유일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만희. 『간추린 19세기 낭만음악사』. 대전: 예광, 2005.
- 공민선. “베토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고전적 소나타 양식에 대한 연구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 A장조 Op. 69”, 서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금란. “베토벤 첼로소나타 제 5번 Op. 102 No. 2 in D Major 제 1악장의 분석 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문자 외 4인.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서울: 심설당, 2003.
- 김방현. 『작곡가 전기 시리즈 5: 슈베르트』. 서울: 삼호출판사, 1995.
- 김승일. 『문화사로부터 접근하는 서양 음악사』. 서울: 예일출판사, 2006.
- 김홍연.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13: 슈베르트』. 서울: 음악세계, 2003.
- 박계연. “F. Schubert의 Arpeggione Sonata in A minor의 분석적 고찰”, 대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박한희. “F. Poulenc의 Sonata for Flute and Piano에 대한 분석 연구”, 광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세계명곡해설대전집 편찬위원회. 『세계명곡 해설 대전집 제12권』. 서울: 중앙문화사, 1984.
- 오현명. 『세계명곡 해설 전집: 작곡가편』. 서울: 동오출판사, 1982.
- 이성삼. 『클래식 명곡 대사전』. 서울: 세광 음악 출판사. 1997.
- 이승혜. “F.Schubert Arpeggione Sonata a단조(D821)의 악곡분석 및 운궁법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용일. 『명곡해설대사전』.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3.
- 이혜영. “F. P. Schubert의 Arpeggione Sonata in a minor (D.821)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임혜정. 『피아노문헌 개요』. 서울: 수문당, 1981.
- 한송이. “F. Schubert의 Arpeggione Sonata a단조(D821)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홍세원. 『고전과 음악』.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 Apel, W. (ed.). *The Harvard Dictionary of Music*(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Einstein, A. *Music in the romantic era*. NY: W. W. Norton & Company Inc., 1947.

Mason, D. G. 『낭만파의 음악』. 국민음악 연구회 역, 서울: 국민음악 연구회, 1976.

Sadie, S. (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al instruments*(3rd ed.).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1984.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음악학과	학 번	20097318	과정	석사
성 명	한글 : 박지유 한문 : 박 祉 柔 영문 : Park Ji-yu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1동 덕산아파트 A동 206호				
연락처	E-mail : jecellist @ nate.com				
논문제목	한글 Franz Schubert의 Piano와 Arpeggione Sonata A단조(D 821)의 형식 분석				
	영문 The Musical Form in the Sonata in A minor for Arpeggione by Franz Schubert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11 년 2 월

저작자: 박 지 유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